



**롯데상동복지재단,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 기증식**

롯데상동복지재단이 지난 1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울산 5개 지역 취약계층에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장혜선 롯데상동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상동복지재단



**KCC,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5억 기부**

KCC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5억500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15일 KCC에 따르면 자사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에 기부금을 분할 기탁함으로써 기부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KCC



**BNK경남은행, 창원시에 1억 상당 '복꾸러미' 기탁**

BNK경남은행은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창원특례시에 1억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침가루, 고추장, 참치, 당면, 김 등 식료품 18종이 담긴 복꾸러미는 창원특례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2000세대에 나눠 지원된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오른쪽)과 흥남표 창원특례시 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에몬스, '2025 장학금·장학증서' 수여**

에몬스는 인천시 고잔동 본사에서 '2025 에몬스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에몬스 장학회는 20명의 학생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에몬스 김경수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



**인하대, 제4회 'INSTAR 페스티벌' 개최**

인하대학교는 최근 제4회 INSTAR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INSTAR 페스티벌에선 혁신인재양성사업 재선정 평가에서 예비 선정된 스마트시티, 우주 분야 2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명대 수여식이 진행됐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페스티벌에 참여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 삼성, 협력사 대금 5600억 조기 지급... 온라인장터 운영

**삼성전자 등 11개 관계사 참여  
홍삼액, 떡국떡 등 판매**

삼성 관계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온라인장터를 운영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앞장선다.

15일 삼성은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물품대금 5600억원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32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미활용 특허 무상 개방, AI시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온라인 장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템 접목, 전문인력 양성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와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선정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협력회사들의 ESG 경영 전환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협력회사 ES

G 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협력회사들은 최대 20억원을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납

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또 삼성 17개 관계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장터 운영과 협력회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돕는다. 삼성 관계사들은 설 연휴 직전까지 사내 게시판과 지자체 쇼핑몰, 소상공인 직거래몰 등에서 온라인 장터를 운영한다. 임직원들은 이 장터를 통해 농축수산물 등 전국 특산품과 스마트공장 제품, 자매마을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온라인 장터에는 삼성전자가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한 '스마트공장' 업체 60개 이상이 참여해 홍삼액, 배도라지 농축액, 돌미역, 떡국떡 등을 판매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지역사회에 '이쉐어' 친환경차량 전달

**김동욱 부사장 "지속가능 미래 기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친환경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경기 파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드림에서 '이쉐어' (E-Share) 친환경차량 전달 및 충전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쉐어는 지역사회 내 전기차 저변 확대와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환경



박정 국회의원(왼쪽부터), 환경부 김완섭 장관, 행복드림 김해정 시설장,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이 15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드림(경기도 파주 소재)에서 '이쉐어' 친환경 차량 전달 및 충전소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시작한 친환경 전기차 패키

지 지원 사업이다. 개소식이 열린 행복드림은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곳이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부터 이쉐어 사업을 실시, 매년 4개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1대와 공용 충전기 2~3기를 지원했다. 지난 2년간 80개 기관에 총 80대 전기차와 공용 충전기 200기를 제공했다. 올해도 40개 기관을 선정해 전기차 및 충전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지원된 전기차와 충전기는 빠르고 편한 이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도 여러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남양유업, 특수분유 생산 40주년 맞아

**환아·가족 위한 사회공헌 지속**

남양유업이 올해로 특수분유 생산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환아와 가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1985년 '임페리얼드림 XO알레기'를 시작으로 환아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분유를 선보이며 국내 특수분유 시장을 선도해왔다. 희귀 질환 환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분유

시장은 대량 생산이 어려워 경제적 수익은 없으나 남양유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품 개발과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 제품인 ▲'임페리얼드림 XO알레기'는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인 갈락토스혈증 환아를 위해 개발된 특수분유다. 대두 단백질과 식물성 당류를 사용해 유당 및 유단백 소화 가 어려운 환아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같은 해 출시된 ▲'임페리

얼드림XO이른둥이'는 저체중아 및 미숙아의 영양 보충에 중점을 둔 특수분유다. 1991년에는 묽은 변 등 장 건강 문제를 가진 아기를 위해 ▲'임페리얼드림XO 닥터'를 출시했다.

이밖에도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뇌전증 환아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인 '뇌전증 인식개선의 날(떠플데이)' 캠페인을 사단법인 한국뇌전증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브란스어린이병원과 협약해 15년째 취약계층에 특수분유 무상 후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LG U+ 협력사 상생경영 앞장

**납품대금 300억 현금 조기지급**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맞아 1300여 중소 협력사에 납품 대금 30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집행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 전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와 상생을 도모해 왔다. 올해 설 명절까지 조기 집행된 납품 대금의 누적 액수는 5200억원에 이른다. /구남영기자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매일오네' 협력 모델 구축**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CJ대한통운은 15일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안정적인 '매일오네(O-NE)'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택배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종

사자들이 협력해 상생 모델을 마련한 사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일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에 서명하고, '매일 오네' 서비스의 안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 근로환경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번 기본협약은 택배기사 휴식권과 복지제도 확대,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에 대해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협약을 통해 대리점연합회는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출산휴가를 신설해 배우자 3일, 본인의 경우 최대 60일을 부여하고 경조사휴가 최대 5일, 특별휴무 3일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음**

▲구태근(BNK경남은행 상무)씨 장인상=15일, 진주시 진주대로 885 진주제일병원 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7일. 055-750-7100

▲조종구씨 별세, 신창동(경남에너지㈜ 대표이사 회장)씨 장인상=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055-260-4261